

멈춤·느긋함 있는 '치앙마이 바느질 정신'

죽음의 바느질 클럽

북태와 한국 지음

2016년 겨울 치앙마이에 도착해 한 남자를 만났다. 덩치가 상당히 큰 젊은 남자는 카페 입구에 놓인 흔들거리에 앉아 있고 두툼한 손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등에는 생후 50일 쯤 된 갓난아기를 업은 채. "바늘과 실이 옷감의 바다 위에서 하얀 파도가 되어 줄지어 오르내렸고, 손가락은 능숙한 서퍼처럼 파도를 타며 넘실거리는 모습은 아름다워" 그녀는 "나도 바느질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온 북태는 그렇게 치앙마이 남자 옆에서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음, 이음, 보음 세 아이와 강아지 열을 키우는 북태와 한국은 바느질과 수선 기술을 나누며 산다. 구멍 난 양말, 뜯어진 옷소매, 찢어진 비닐봉지 등 온갖 물건을 바느질로 똑똑하고 아름답게 살려낸다. 워크숍 모임 '죽음의 바느질 클럽' (죽바클럽)을 통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2000명을 만났고, 그들과 사부작사부작 바느질을 하며 '수선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북태와 한국이 펴낸 '죽음의 바느질 클럽: 모조록 살려내도록'은 바느질 도구와 감칠질, 흡질, 박음질, 블랭킷 스티치, 직조자수 작업 등 바느질 기법, 활용법, 작업 노트가 담긴 책으로 독자들과 '결코 멈출 수 없는 바느질의 세계'로 안내한다. 더불어 '수선하는 삶'의 가치와 '완벽, 욕심, 속도' 대신 '멈춤, 느긋함, 아름다움'이 있는 '치앙마이 정신'에 대해 들려주는 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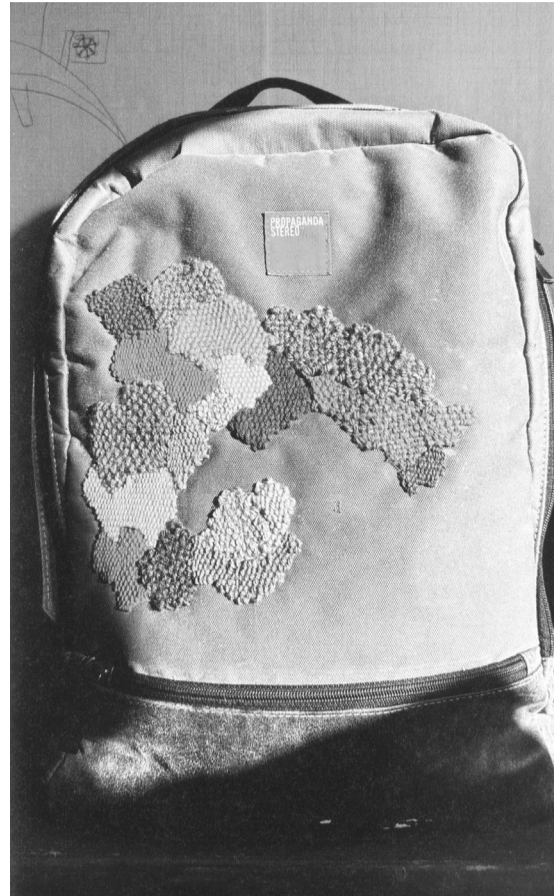
바늘과 실, 가위, 실 끼우개 등 책에 소개된 모든 바느질 도구를 갖추는 비용은 5만원 정도다. 박음질 등 기본적인 기법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함께 실어 책을 접한 이들이 한 번쯤은 "나도 해볼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

'웬만하면 살려내는' 두 사람은 엄지가 뚫고 나온 양말, 친구의 구멍 난 린넨화, 집에 한 두 개쯤 있을 것만 여진 천가방, 이웃집 아이의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 헤진 우산과 소파 등 거의 모든 물건을 수선한다.

수선을 하는 두 사람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그렇게까지 아껴서..."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수선이라는 것은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위하는 마음, 지구를 위하는 마음, 조금 더 먼 곳을 내다보는 마음"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은 비효율적이지 않다. 알뜰함을 귀한 가치이고 바느질은 정성이 깃든 노동임을 수선을 하며 깨닫는다"고 덧붙인다.

책에서는 또 여러 차례 방문한 치앙마이에 머물며 느꼈던 감정과 그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준다.

북태와 한국은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뮤지션이기도 하다. '선과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들이 2022년 발매한 정규 1집 '밤과 낮'은 제20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음반상을, 동명의 타이틀 곡은 최우수 포크 노래상을 수상했다. 책의 말미에는 북태와 한국이 바느질을 하며 듣는 '죽음의 바느질 클럽 플레이리스트'가 실렸다. '모두가 잠든 밤, 잔잔한 그루브'라며 바느질을, '우주를 유영하듯 바느질 하고 싶다면'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곡을 소개하고 있다.



직조 자수로 수선한 헤진 백팩. <미티 제공>

마티가 펴내는 '은시리즈'는 책의 만들새가 일품인데, 이 책 역시 활자부터 사진, 편집 등 예사롭지 않은 구성으로 흥미를 돋운다. <마티>1만9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사랑의 습관= '단추', '너의 눈빛' 등 일상 속 존재와 타자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협성을 투시한다. 존재에서 비존재로 전락하는 존재들을 비롯해 무수한 공간, 타자성 위에서 좌표를 잃은 기호들을 시적으로 은유했다. 동화·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심강우 시인의 시적 언어들은 불안한 존재들을 정면으로 포착한다. 이들은 흔들거리거나, 좌표축 위에서 존재의 향방을 잃거나 또는 소멸하는 등 저마다의 이품을 겪고 있다. <시인동네>1만2000원

▲우리가 본 것=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거대 sns 속에는 유해 게시물이 범람한다. 이들을 삭제하고 검색하는 플랫폼 하청 회사 '헥사'에 소속돼 유해 게시물을 검토/삭제하는 콘텐츠 감수자들의 세계를 묘사한다. 매일 유해물을 접하는 이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함을 겪곤 한다. 주인공 케일리는 콜센터보다 높은 시급을 준다는 이유로 '헥사'에 취직하지만, 하루에 500개 이상의 클립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하며 화장실에 갈 시간도 부족하다. <북하우스>1만5000원

▲너와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 관계심리학에 묻다=어디든 무례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존재한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관계심리학의 비밀에 대해 소개한다. 의사소통이란 자기 이해에 기반을 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며, 의사소통 패턴이 발달



로 나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점을 강조한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대기능과 과소기능을 마주하며, '사회'라는 집합 속에서 모순적인 양상을 겪곤 한다. <코리이닷컴>1만8000원

▲꽃생김의 심리학=현대인들은 지극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데 치중하는 면이 있다. 그런 연유에서 '외모 스트레스'와 '꾸밈 노동'에 대한 압박감이 극에 달한 시대다. 그러나 뇌는 외모를 보지만, 동시에 외모만 보는 것은 아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자 과거 탈모 증세로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있던 저자는,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을 역설한다. <몽스북>1만7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너의 여름에 내가 달을게=대학 입학 준비하던 여름방학 어느 날, 은호와 도희 앞에 스토커가 나타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를 피해 두 사람은 바닷가 마을인 '소소리'로 도망을 친다. 한편 서른 살 나이는 과거에 소꿉친구가 당한 사고가 반복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 세 사람의 관계를 타임슬립이라는 소재를 통해 묶어낸다. <창비교육>1만4500원

▲중도에는 깜빡 도깨비가 산다=보름달보다 10배나 밝은 가로등 불빛은 '빛 공해'를 일으켜 50만 종의 곤충들을 멸종 위기에 처하게 한다. 30-50억년에 달하는 이 불빛들은 곤충에 치명적이기 때문이

다. 전남 신안군 중도는 불을 덜 켜는 방법을 선택한다. 갯벌 생물들이 '꿀잠'을 청하고, 도깨비들이 나타나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어린이가문비>1만4000원

▲여름의 빛=세계적 삽화가인 장자크 상페가 여름의 풍경들을 화폭에 담았다.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들, 수영장에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 큰 소나무 옆으로 자전거를 기울이고 단잠을 청하는 사람. 부드러운 색채 속에는 친근한 인물들이 담겨 있다. 저마다 '여름'을 모티브로 한 철 뜨거운 계절을 신비롭게 묘사했다. <열린책들>1만4800원

'우연한 실수'에서 비롯된 48가지 세계 미식탐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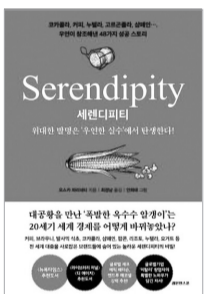
세렌디피티

오스카 파리네타 지음 최경남 옮김

커피와 코카콜라, 샴페인, 팝콘, 감자튀김, 두부, 아이스크림... 대중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많은 식재료들은 어떻게 해서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됐을까? 놀랍게도 대부분 '우연한 발견(실수)'에서 비롯됐다.

신간 제목인 '세렌디피티' (Serendipity)는 1754년 영국작가·미술사가인 호레이스 윌폴이 '무언가를 찾다가 실수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을 묘사하기 위해 만든 단어로, 스리랑카의 옛 이름(세렌딕)에서 따왔다.

뜻밖의 '우연한 발견'에서 비롯된 48가지 미식탐험에 나선 저자는 문헌자료 대신 연관된 브랜드 CEO와 셰프, 파티시에 등을 직접 만나 독자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초코칩 '누텔라'를 생산하는 페레로 그룹 CEO 조반니 페레로는 '세렌디피티'에 대해 이렇



게 밝힌다. "세렌디피티는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데, 중요한 '발견'은 다른 무언가를 찾는 동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위한 지성과 본능이 결합처럼 보이는 것을 기회로 바꾸고 고객이 인식하기도 전에 필요를 창출할 때 발생하지요."

'우연'에서 시작된 미식의 역사는 흥미롭다. '안초비' (Anchovy)는 1880년대 스페인 북쪽 칸타브리아 해에서 난파당한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 선원들이 바스크 현지인들에게 유랍멸치(안초비)를 소금으로 염장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시작됐다. 이탈리아 에스테 가문에서 탄생한 '발사믹 식초'는 사바(과일을 끓여서 얻은 달콤한 시럽)와 식초를 섞는 고대 식문화가 기반으로 한다. 오랜 숙성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천천히 서두르라'는 삶의 방식으로도 은유된다.

여름철에 자주 접하는 '막대 아이스크림'과 '아이스크림콘' 또한 의미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막대 아이스크림'은 1923년 프랭크 에퍼슨이 어린 시절 으깬 얼음에 다양한 시럽을 넣어 만들었던 기억을 살려 특허를 냈다. 원뿔모양 '아이스크림콘'은 1904년 7월 열린 '루이지애나 구매박람회' 때 아이스크림 판매자를 돕기

위해 나선 제과류 요리사(어니스트 함위)에 의해 첫선을 보였다. 두 개의 '우연한 발견'을 통해 대중들은 값비싼 아이스크림을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게 됐다.

저자는 자연동굴에서 숙성되며 푸른곰팡이에 의해 맛과 보존력이 좋아진 치즈(고르곤졸라)를 비롯해 소화불량을 겪는 13살 어린 왕을 위해 만든 작은 막대기 빵(그리시니), 1794년 9-11월 서리가 내린 후 얼어버린 포도송이를 수확해 빻은 '아이스 와인', 기원전 164년 중국에서 콩국에 실수로 천일염을 넣었다가 만들어진 '두부', 가난한 사람들의 향신료인 '고추' 등 미식의 분향을 찾아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저자는 48번째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렌디피티' 사례로 인류를 꼽으며 이탈리아 파도바에 텔로 피에바니의 기고글로 마무리한다.

"인간의 세렌디피티는 끝까지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숨겨진 목표가 없다는 점에서 결론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레몬한스푼>1만95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